

광주 투기과열지구 이달내 해제

건교부, 현지실사 등 마쳐... 금명 주택심의위서 결정

지방 도시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신일의 부도를 계기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광주와 부산 등 지방 광역시가 이달 내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방 주택시장이 날로 침체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최근 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이달 내로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용섭 건교부 장관도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한) 주택정책심의

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해제 1순위로 광주, 부산, 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이 장관이 직접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치원생 '119 소방 동요'

1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광주시 소방본부 주최 '119 소방 동요 경연대회'에 참가한 광주 아이미소 유치원생들이 나무를 상징하는 복장을 입고 '산을 지키자'는 동요를 부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건설업계 등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미분양 물량 해소, 분양률 상승 등 지방 건설업체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를 비롯한 지방 광역시는 미분양 물량 급증, 중소건설사 부도 등 주택경기가 크게 위축된 데다 각종 부동산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제기돼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 대한 현지실사 및 각종 지표 검토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한 준비는 돼 있다"며 "다만 해제 여부는 대상 지역 등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전남 최종부도 처리된 ㈜신일과 관련, 공사지연 등에 따른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區경계 다시 짚매됐다 2 증폭되는 주민불편

골목길 사이 두고 갈린 구청 불법쓰레기 수거 나몰라라

기초생활자 밀집 북구 복지혜택 취약

광주시의 현재 자치구간 경계는 지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 12년 전 정해진 현재의 구간 경계는 급속히 진행된 도로 개설과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한 생활구역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간경계가 간선도로가 아닌 골목길을 기준으로 나눠진 경우가 허다하다.



불합리한 구간경계는 광주 동구와 북구 접경지가 가장 심각하다. 특히 동구가 구간경계 조정 차원에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북구의 풍향·두암3동은 동구 계림·산수동과 골목길 하나를 두고 자치구가 달라 주민들의 혼선을 물론 공무원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의 불편이 가장 심한 곳은 두암택지지구 일대다. 이 지구에는 두암타운과 주공아파트(1~4단지)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두암타운은 동구(산수2동)에 속해 있으며, 주공단지는 북구(두암3동)다. 비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해 있는 아파트지만 행정구역이 다른 것이다. 두암3동 주민 정모(55)씨는 수

이 때문에 두암3동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해당 공무원들의 방문 서비스나 수시로 변화하는 복지혜택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두암 3동의 주민 김모(58)씨는 "북구청에 전화를 해도 상담해줄 사람이 없어 동구청에 전화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극빈자들은 자신단체가 보낸 쌀이나 라면 등 생필품이 큰 도움이 되는 데, 북구는 극빈자들이 많아 돌아오는 몫이 동구에 비해 적다"고 말했다.

동구 계림동 급속타운 아파트와 인접한 북구 풍향동 주택가 등의 주민들도 경계의 모호로 똑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동구는 인구가 급감하면서 시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 규모가 지난 해보다 10억원 감소한 것을 비롯,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 동구는 또 적은 인구에 비해 대규모 시설사업 유치에 불능하다. 남구가 850억원 규모의 실버타운 조성, 북구는 190억원을 들여 노인복지타운을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는 적은 인구에 따른 낮은 사업성 때문에 이 같은 시설을 유치할 수 없어 구간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최정호기자 chae@

“부시 강경정책 北核사태 불렀다”

6·15 남북정상회담 7주년 임 동원 前 통일장관 단독 인터뷰 ▶5면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다뤄질 문제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장관은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 특

사로 파견됐던 임 전 장관은 6·15 남북정상회담 7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주요 의제는 남북경제 교류 및 활성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문제 등 민족문제가 돼야 한다”며 “북


한의 핵 문제는 6자 회담에서 우선 다뤄져야 하며 정상회담의 의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8·15 이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임 전 장관은 “북한의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현재의 상태나 유지하고 있는 것은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쌓은 상호 신뢰의 영향”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은 냉전 체제가 종식되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내세우자 북한이 결국 핵 카드를 꺼내 쓴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장관은 “지난 6년 동안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참여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못했다”며 “최근 부시 행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 협상과 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임동원기자 tuim@kwangju.co.kr

우암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당동보실 (062)970-0114 ▶T.(062)970-0001~9

세게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상당동보실 1588-5051 ▶T.(061)360-5000

‘광주일보 은펜상’ 2007년 5월 수상자 최용수 씨
‘광주일보 은펜상’ 2007년 5월 수상자로 최용수(52·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씨가 선정됐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 5월 10일자 ‘건망증의 빛과 그림자’라는 기고를 통해 고령자의 유혹에 넘어가 금융 다단계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최 원장에게는 광주일보 마크가 새겨진 은촉 만년필을 드립니다.



국제약품 기원라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갠려윈 제 1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하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리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리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랑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